

■ 2024년 예술극장 [아르코 댄스 & 커넥션 본공연(무대공연) 최종 선정 심의 총평

무용인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아르코예술극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춤 작업에 보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연말부터 3월까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로부터 방향성을 체계화시킨 사업의 첫 번째 결실이 10.31(목)~11.7(목)까지 4개의 공연으로 탄생하였음.

공연된 4개의 작품은 다시 본 심의를 거쳐 2개의 작업에 차년도에 재공연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의 설계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무용인으로서 본 사업을 매우 환영하는 마음으로 심의와 토론에 임하였음.

신인의 시기를 경과한 안무가에게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의욕과 과정은 필연적인 과정인 바, 안무가에게 이번 작업이 지난 창작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법론과 형식 실험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지, 그것이 안무가에게 의미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지는 본 심의의 중요한 기준이 됨.

무용의 창작 환경은 지원사업의 확대와 다양한 지원 방식의 플랫폼이 존재하나, 창작 과정은 2달을 넘기기 어려운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음. 이는 창작에 필수적인 '창작으로의 진입과 몰입-반성과 관조 reflection & contemplation-재몰입-다듬기' 등의 창작 리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현실임. 또한 무용 예술이 안무가 1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바, 이 사업은 창작의 충분한 시간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협업 형태에 대한 권장 그리고 극장의 무대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 작품성 구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각 작업이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실현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심의의 구체적 기준이 되었음.

각 작품에 대한 감상과 소회를 공유한 후 진행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다시 한번 심의 기준을 환기하고 차년에 있을 재공연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며 사업 취지 중 하나인 '다양성'을 기준으로 공연작을 검토하였음.

〈Extinction_ver.2〉 (전혁진 안무)은 '소멸'에 대한 강렬한 정서가 일관되게 작품을 관통하여 진한 여운을 남기는 작품으로 완성도를 갖췄다는 점이 높은 인정을 받았음. 무대에서의 현장 촬영, 현장 편집, 비디오그래퍼 와 비주얼디렉터의 작업이 춤의 공간과 객석을 넘나들며 만들어 내는 매체적 확장과 남녀 무용수와 두 개의 의자와 흔들리는 등이 빛어내는 무대 위의 응축성이 매우 신선한 것은 아니나 수작으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어떤 힘 invisible Forces〉 (정철인 안무 & 이진형 기획·테크니션)은 의도적으로 춤을 배제한 실험

과 양자역학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을 도입한 것은 신선했으나 무대에 출현한 사물에 대한 집요한 접근과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아쉬움을 남겼음.

〈middle walking middle〉(김건중 안무)는 색다른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전시와 퍼포먼스, 공연을 연결하는 공간에 대한 실험은 높이 살만하나 주제를 퍼포머의 몸으로 녹여내는 작업에서 아직은 출구를 찾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음.

〈Pan & Opticon〉(이해니 안무)의 괄목할 만한 과정에서의 도약은 대부분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 중간공유회를 거치며 안무가의 고민이 깊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라이브 캠을 재치 있게 공연에 녹여낸 영상연출, 극장 사용의 관행을 깬 무대디자인, 극장의 무대, 음향 스텝과의 협업에서 오는 시너지가 여러 미숙함을 덮을 만큼 젊은 창작자들의 패기와 재치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6인의 심의위원은 최종 토론을 거쳐 작품 안무력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도약과 섬세함을 갖추나가 수작으로의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주어 〈Extinction_ver.2〉, 〈Pan & Opticon〉을 최종 선정하였음.

예술극장과 무용 현장의 심의위원이 벌인 열띤 심의 과정은 본 사업에 대한 기대와 열의를 반영하는 것이었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심의 시간 부족으로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창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르코 댄스&커넥션'의 차별성과 입지를 갖추나가야 하는 과제 앞에서 '커넥션'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에 많은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번에 드러난 젊은 극장 스텝과 무용 예술가들이 의기투합은 '현장과 아르코 극장의 커넥션'
관객과의 대화를 충실히 실행한 것에서 예감되는 '공연과 관객과의 커넥션'
아르코의 다른 창작 플랫폼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플랫폼의 커넥션'
그리고 창작에 중요한 '다양성과 새로움과의 커넥션'

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의위원일동